

철도공, 적격심사 개정 '도마 위'

(下)적격심사에 전문성 더해야

분야별 현실 고려한 기준 마련돼야

관련업계, 전문성 강화 방향으로 기준 개정돼야 '한 목소리'

철도시설공단의 적격심사 기준 개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철도공단의 적격심사 기준이 시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철도공단은 현재 시공 업체를 평가할 때 토목과 건축, 전기, 신호, 통신, 궤도 등을 가리지 않고 전 분야에 걸쳐 대부분 공통된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한전 등 공기업들이 분야별로 저마다의 기준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이를 두고 업계는 철도공단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각 분야별로 상황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철도공단이 적격심사 기준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발생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이번 개정안

에서도 이로 인한 문제도 도출되기도 했다.

철도공단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견·대기업 등 중소기업 외 기업의 경영평가 만점 기준을 A+로 정하고 있다. 토목이나 건축 분야에서는 많은 중견·대기업이 이 같은 기준을 만족할 뿐 아니라 큰 기업이 참여하는 공사 대부분이 300억원 이상의 중심제로 발주된다. 참가자격을 BBB0 이상의 신용평가를 획득하면 대부분 통과할 수 있다.

반면 전기 분야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중견·대기업이 전기 분야에서 이 정도의 신용평가를 만족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 참여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소기업 외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다.

철도공단의 전문성이 부족한 기준의 폐해로 지적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녹색인증 가점제

다.

대부분 건축·토목 분야에서 사용되는 이 인증은 전기공사 입찰에서도 가점 대상이다. 그러다 보니 업체들이 가점을 받기 위해 수익원을 들여 녹색인증을 획득하는가 하면, 전기공사와 관련 없는 업체가 녹색인증 가점을 받아 컨소시엄에 참가해 낙찰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녹색인증을 획득한 전기공사 업체가 인증을 유지하지 못해 취소당하는 일도 최근 발생했다. 사실상 전기공사업체와는 관련 없는 인증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철도공단이 분야별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적격심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전기 분야가 피해를 보는 일이 적지 않다"며 "적격심사를 통해 업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재고해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ydw@

인천공항공 위기대응 컨트롤타워 가동

공항 내 장애·사고 감시 통합운영센터 개소

인천공항공사가 위기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가동한다.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공항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상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통합 운영센터(IOC)의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내 IOC 상황실에서 인천공항공사 경영진과 인천공항 상주기관장, 항공사 지점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인천공항 통합운영센터는 공항 이용객의 증가로 인한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구축됐다.

IOC는 앞으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오픈으로 공항운영 핵심시설의 규모가 확대되고 공간적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공항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크고 작은 장애와 사건·사고 등을 한눈에 감시하고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마련됐다.

인천공항공사는 기존 보안, 터미널운영, 수하물처리 등 각 분야별로 운영상황과 비정상 이벤트를 모니터링하는 현장센터를 비롯해 이를 총괄하는 공항운영센터(AOC)를 운영

해왔다.

나아가 특정 분야의 비상상황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이 더욱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다 집약적인 시설과 인력 운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왔다.

통합운영센터는 공항내 각종 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존 여객터미널뿐 아니라 내선 초개장하는 제2여객터미널까지 공항 전 지역을 감시하는 종합상황실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상상황 발생 시 여객흐름, 보안검색, 출입국심사 등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 분석해 유관기관에 전파하고 복구를 위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종합적으로 지휘하는 비상관리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나아가 스마트한 상황 관리를 위해 모바일 기반 상황관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통합운영센터와 30여개의 현장 센터를 연결하는 화상회의 시스템도 구축했다. 상황관리 앱은 시험 운영 중으로, 이를 활용하면 여러 부문의 장애나 사고 등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관계자들에게 공유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대원 기자



인천국제공항 통합운영센터 개소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기철도분야 기술자 고령화 심각...후진 양성 시급"

전기철도 기술세미나·전문 교육 체계 구축·자격제도 활성화해야

전기철도분야 전문 기술자들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철도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인재를 양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2일 서울역에서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기술사회가 공동 주관한 '전기철도 기술세미나'에서는 전기철도 산업의 기술 발전과 노하우 공유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세미나는 ▲전기철도 전략분야 ▲철도 전기시설 ▲해외철도 동향 ▲고속철도 등을 주제로 대한 전기철도분야 유관 기관 전문가들의 발표로 채워졌다.

'전기철도 전략분야 발표 및 조사 결과보고' 발제에 나선 오완식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 부장은 자체 진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철도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오 부장은 "현재 전체 전기철도 전문기술자 중 50·60대 비중이 52.9%에 달할 정도로 기술자 고령화가 심각하다"며 "다른 연

령대의 비중이 적어 장기적으로 인력 수급 부족, 경력 단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철도 기술자를 육성하는 현행 교육 훈련 체계도 이러한 인력난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았다.

전기철도기술협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특성화고, 전문·일반대학교(대학원) 등 철도 기술자를 육성하는 기관은 총 13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아예 철도 분야와 무관한 내용을 교육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12일 열린 '전기철도 기술세미나'에서 오완식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 부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교육 커리큘럼도 미흡해 전문성을 높이기엔 부족함이 많다는 게 오 부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2014년 이후 매년 주요 대학·대학원의 졸업 정원은 입학 정원보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체계가 철도 기술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아울러 전기철도 분야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기철도 분야 관련 자격인 전기철도기사·전기철도산업기사·철도전기신호기사·철도안전전문기술자 등의 자격은 매년 기술 보유자 수가 급감하고 있다.

특히 전기철도산업기사 자격의 경우엔 취득자 수가 2014년 4명, 2015년 8명, 2016년 5명 등 한자리 수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오 부장은 산·학·연 활성화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과 자격제도 활성화를 제안했다.

오 부장은 "산·학·연의 상시적인 교류 협력으로 다양하고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해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가점·우대제도 등 전기철도분야 국가기술자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국 기자 kimgg@

서울9호선운영노조, 100일간 '릴레이 1인 시위'

12월 19일까지 시위·교섭 활동 병행

9호선 노조가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하는 100일간의 릴레이 1인 시위를 개시했다.

11일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은 서울시청과 가양·염창·여의도·국회의사당·노량진·신논현역 등 9호선 6개 역사 앞에서 첫 1인 시위를 열고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시위는 출근 시간인 오전 7시30분에서 9시 사이 2인 1개조로 구성된 노조원들이 각 현장에서 1시간 가량 선전물 배포, 피켓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노조는 선전물을 통해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공공재인 서울9호선이 시민안전에 관심 없는 외

국회사의 이익을 챙기는 도구가 돼선 안 된다"며 "사측은 주주배당을 줄여 무리한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측과 갈등으로 파업을 선언했던 노조는 최근 실시된 사측과의 교섭마저 결렬되자 이 같은 릴레이 시위를 기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이날 시위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19일까지 100일간 전 노조원이 참여하는 규탄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기범 노조 위원장은 "내주 중 사측과 추가 교섭이 예정돼 있다"며 "하지만 이와 별개로 교섭과 시위를 병행해 노조의 주장을 전달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국 기자

에스컬레이터 3대 안전수칙



손잡이 잡고 이용하기



걸거나 뛰지 않기



노란안전선 안에 탑승하기

꼭! 잡고 함께가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듯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는 손잡이를 꼭! 잡아주세요

www.koelsa.or.kr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종합민원센터 1566-1277